환 경

환경규제, 국제표준으로 극복한다

기술표준원, 환경표준 국제세미나 개최 …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기회

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·확산되고 환경표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, 국내 기업들이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.

기술표준원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환경표준화 동향정보 및 국가표준에서의 환경성 도입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제세미나를 9월 13일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했다.

EU에서 시작된 국제환경규제는 미국·일본·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. 특히, 올해 6월에는 개별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(REACH)가 발효,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
우리나라 총 수출의 37%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산업의 경우, 환경규제 주요 대상지역으로의 수출 규모가 약 63%에 달해 국제환경규제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.

이번 세미나에서는 IEC/TC111(국제전기기술위원회/전기전자제품환경표준) 의장인 모리 고이치씨가 직접 전기전자제품의 국제환경표준에 관한 최신 동향을 발표, 많은 관심을 모았다.

※ IEC/TC111 : 전기전자제품의 환경표준(물질선언 및 제품의 환경성 정보공개, 에코디자인 및 유해물질시험방법 등)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전문위원회의 하나임

또, EU REACH에 대응한 선진사례인 후지필름 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(JAMP)이 소개됐으며, 우리나라의 KS 환경성 도입 정책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.

※ JAMP(Japanese Article Management Promotion-consortium) : REACH(신화학물질관리제도)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130여개 기업들이 작년 9월 발족한 단체

기술표준원 조덕호 바이오환경표준팀장은 "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 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"며 "이를 위해 KS에 환경성을 도입하기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관련 사업에 착수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및 확산

- EU의 각종 환경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, 미국, 일본,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확산
- 이러한 환경규제는 총수출의 36%('05년:1,027억불)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·전자분야에 집중

□ KS에 환경성을 도입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 필요

- 환경성 도입 KS를 기술기준에서 인용토록 유도하여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

2. 환경성 KS의 정의와 분류

□ 정의

- 환경 및 자원순환에 관련된 국가표준규격(KS)의 총칭

□ 분류

구 분	주요 내용
환경배려 규격	- 환경성 측면, 예를 들면 유해물질 배제, 재활용,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한 제품 규격 및 시험평가방법 규격
환경측정 규격	- 대기·수질·토양 등,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속에서의 농도, 또는 배출농도의 측정방법 규격 - 화학물질이 환경·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시험방법 규격
환경관리 규격	- 환경경영시스템(ISO 14000) 및 온실가스 검증, 전과정평가, 자기적합성 선언 가이드라인 등 환경관리 시스템 규격